

AVENUE

프리미엄 쇼핑 매거진 에비뉴엘 JANUARY 2015



Luxury Is
The Lifestyle

데이비드 내쉬 'Torso', Bronze, Patinated Black, 196x94x61cm, 2011.



나무와 인간

“나무의 수명주기는 인간의 수명주기를 닮았다. 그들은 밤낮으로 성장하고 호흡하며 계절들을 지나며 깨어 있거나 잠을 잔다. 나무는 자신들의 형태를 통해 시간의 이야기를 보여준다.” 영국의 조각가 데이비드 내쉬(David Nash)의 말이다. 자연에 대한 윤리적 접근 태도와 야생에서 발견한 나무들에 정교하게 형태를 부여한 심미적 오브제 작업으로 잘 알려진 작가는 기후나 질병으로 쓰러진 나무만을 재료로 작품을 만든다. 도구를 이용해 날씨에 따른 목재의 균열이나 나뭇결의 다양한 밀도, 수명주기에 대응하며 완성된 조각들은 상징적 울림을 준다. 이 과정을 통해 나무(오브제)와 인간(작가) 사이의 심오한 관계를 엿볼 수 있다. 1월 25일까지 국제갤러리 2관에서. 문의 735-8449

베이징 798예술지구에 있는 화이트 박스 뮤지엄에서 열린 김길후 작가의 개인전 전경.



마음의 흔적

중국을 대표하는 현대미술 작가들을 다루며 베이징 예술거리 798지구의 핵으로 떠오른 화이트 박스 뮤지엄. 그곳에서 한국 작가 김길후를 만났다. 베이징의 명망 있는 갤러리에서 처음으로 한국 작가를 소개한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요즘 작가들은 그 누구도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죠. 김길후의 작업은 달랐어요. 인간의 외로움, 고독, 노여움, 슬픔, 기쁨을 지극히 서정적인 언어로 이야기하죠.” 김길후의 작업 세계를 마음으로 느낀 손영중 관장은 중국에서 가장 손꼽히는 큐레이터인 왕춘천에게 작가의 개인전 기획을 부탁했다. 지난해 베니스비엔날레 중국관을 기획한 왕춘천 역시 김길후의 작업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역사적 이미지를 포착하지만 역사화를 그리는 것은 아니며 이미지를 변형시키지만 모더니즘의 양식을 확인하려는 목적은 아니다. 그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정신의 투쟁과 영혼의 울림이다.” ‘마음의 흔적’이라는 테마로 열린 김길후의 개인전은 지극히 동양적인 정서와 인간 내면을 깊이 있게 다루며 큰 호응을 얻었다. 문의 www.798whitebox.com

감각의 풍경

이광호의 회화는 대상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그린 것들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초상화는 180cm, 선인장은 100cm의 거리를 두고 그렸다. 대상과의 물리적인 거리를 확보하면 보다 객관적인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상징처럼 여겨졌던 이광호의 극사실주의는 최근 방향을 선회한 듯 보인다. 유네스코에 등재돼 있는 제주도의 숲 꽃자왈을 그린 신작에서 선명한 윤곽은 찾아볼 수 없다. 손을 뻗으면 만져질 것처럼 풍경 그 자체가 살아 있을 뿐이다. 작가는 대상과의 거리를 제로로 만들고 자연을 만진다는 기분으로 그림을 완성했다. 풍경의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 감각이 이르는 대로 붓질을 한 셈이다. 낮은 낮대로 밝은 밤대로 살아 있다. 1월 25일까지 국제갤러리 1관에서. 문의 735-8449



이광호 'Untitled 1304', Oil on Canvas, 173x150cm, 2013.